



특별기획 II 한국 대학의 경쟁력, 진단과 처방

한국 대학의 경쟁력과 그 제고 방안

어윤대 | 고려대학교 전(前) 총장

드라마 주몽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오랫동안 한반도와 요동 일대를 장악했던 고조선은 청동기에 안주하고 있다가 어느 날 단단한 철기 무기로 무장한 한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만다.

철은 당시에 일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먼저 무기로 만든 곳이 한나라였다. 제련하는 과정에서 황토를 이용하여 탄소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강도 높은 철기 무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초강법이다. 이 초강법을 먼저 개발하여 칼과 창 등 모든 무기의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고 그 무기의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를 평정한 것이다. 고조선 사람들은 철에 관한 지식에서 뒤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백성이 나라를 잃고 죽어갔거나 국경지대를 떠돌면서 유민생활을 해야만 했다.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문명을 먼저 개발하거나 입수한 측이 항상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근대 사회학의 대가인 미국의 윌리엄 오그번은 그 유명한 사회변동론(社會變動論)에서 이른바 '문화지체이론'을 갈파한 바 있다. 발명을 통한 기술개발이 역사 발전을 이루는 핵심 동력이며 이 과정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겨난다는 내용이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조셉 고비누는 "문명상의 우열이 생기는 사실만 알면 불평등으로 점철된 전 세계의 인류 역사를 훤히 내다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로마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아놀드 토인비도 결국은 문명을 역사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식과 문명에서 앞선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5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우리의 선조들이 메이지유신 이후 갓 피어난 일본 제국주의에 무너져 오랜 세월 동안 비참한 식민생활을 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도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 지식과 문명은 다른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의 구현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지식과 문명은 도대체 누가 꾸려 가는가. 시대의 고급과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그룹이 이끌어가기 마련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앞장서 헬레니즘으로 불리는 서양문명을 만들어 내었다면, 중국의 제자백가들은 유학에 입각한 고도의 동양식 도덕문화를 만들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이 역할은 싫든 좋든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이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경쟁력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물론이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할 것이다.

스위스 IMD가 발표한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2005년 조사대상 60개국 중에서 59위에 랭크된 바 있다. 2006년에 와서 54위로 올라섰으나 우리나라의 다른 부문들과 비교해 볼 때 대학의 경쟁력이 유난히 낮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가 그만큼 어둡다는 것이다. 한평생 대학에 몸담아 온 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학 사회에는 IMD와 같은 국제기관의 순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형이상학의 학문을 다루는 상아탑의 가치를 어떻게 계량화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자주 듣게 된다. 이 주장에 동감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학문의 세계는 선불리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앙케트를 통한 연구방법론에도 문제가 있다. 수준 높은 한 편의 논문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논문 게재 편 수로 우열을 나누는 방식에도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동서양의 언어와 가치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영문학과 국문학을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경쟁력의 비교에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권위 있는 기관들은 아주 엄격하면서도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최첨단의 기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논문 게재 편 수 뿐 만 아니라 그 수준을 객관화하여 비교한 지표, 구체적인 교육환경, 그리고 상호평가 등 실로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서열을 매긴다. 통계학과 수학과 고도로 발달해 형이상학의 세계에 대해서도 비교측량을 시도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순위 자체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주관적인 효용, 즉 만족도도 계량화하여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더욱이 한 번 내려진 평가는 선순환 또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세계의 명문으로 평가받으면 우수한 연구 인력과 교수진 그리고 최고의 학생들이 쏠려온다. 사회 현금도 마찬가지로 학교는 더욱 발전하고 또 다시 평가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는 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고 평가 순위 또한 올라간다.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일본의 와세다대학교와 게이오대학교는 서로 순회하면서 한 해 한 번씩 교류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4개 교의 총장들이 직접 참석하여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이다. 2005년에는 순서에 따라 고려대학교가 행사를 주관했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던 필자는 한국과 일본의 지성들을 맞아 극진하게 모셨다.

4개 대학 회의가 시작되던 날 아침 영국의 『더 타임즈』가 예고도 없이 세계 대학의 서열을 발표했다. 고려대학교가 184위에 올랐다. 한국의 사학이 세계 200위권 안에 진입한 것은 이때 고려대학교가 처음이었다. 사회과학은 66위에까지 올랐다. 2010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에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철치부심해 왔는데 총장 취임 3년차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 참으로 뿌듯했다.

마침 그 날 4개 대학 회의의 총장 모임이 오전에 있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썰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려대학교를 뺀 나머지 세 대학은 모두 20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일본의 와세다대학교와 게이오대학교는 우리가 학문을 배워 온 명문 대학들이다. 그 두 대학의 총장들로서는 평소 한 수 아래로 생각해 왔던 고려대학교의 약진에 대해 크게 놀랐을 것이다. 행사를 주관한 입장에서 낙담한 그들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안절부절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만큼 국제기관의 평가는 당사자는 물론 그 조직 그리고 나아가 해당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로 중요한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이듬해인 2006년 『더 타임즈』 서열 150위로 한 단계 더 올랐다. 고려대학교 교우회와 졸업 선배 중에는 국제순위에서의 이 같은 빠른 도약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 번 더 총장에 출마해 내친 김에 그동안의 변화를 시스템화하여 세계의 선두로 학교의 위상을 더욱 높이려는 압력을 넣은 분이 적지 않았다. 처음 총장에 취임할 때 재임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기에 차기 총장선거를 의식한 인기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고려대학교의 경쟁력 향상만을 위해 시스템 개혁에 몰두하면서 앞으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선에서 떨어졌지만 후회는 없다. 네거티브 선거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원망도 하지 않았다. 나쁜 제도는 개선되어 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짧은 4년이었지만 나름대로 혼신을 다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가를 아무런 사심없이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그 경험을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

다. 한국 대학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세계 12위권에 올라 있다. 기업의 업적, 사회활동, 스포츠, 그리고 종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교육에 있어서는 서열이 너무 낮다. 고려대학교가 지난해 올린 150위란 성적도 아직 크게 부족하다.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수년 전 한 지식보고대회에서 한국을 가리켜 “넛 크래커에 걸린 호두”라는 분석을 한 적이 있다. 고도의 원천기술로 무장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15억 인구의 중국에 가로막혀 곧 으깨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맥킨지의 이 보고서는 오늘날 한국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자본과 기술을 축적했다. 그러나 이웃 일본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숙지혈이다. 부품 소재를 일본에서 도입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이 아직도 그리 많지 않다. 상당수의 산업에서는 기술 종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중국의 노동 분야 경쟁력을 도저히 추월할 수가 없다. 애당초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기술도 노동력도 비교 우위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넛 크래커 상황에서 빠져나와 또다시 중흥의 길을 달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교육에 있다. 한국 경제의 근대화 50년 과정에서도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자를 깨우치게 하고 학벌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시로서는 기여를 많이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남들도 다 하고 있는 보통의 교육으로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중국의 인해전술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다.



우선 세계를 무대로 뿔 수 있는 글로벌 인재
를 키워야 한다. 이미 국경이 없어지고 무한 경
쟁이 이루어지는 지구촌 시대가 열렸다. 글로
벌 인재의 육성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우
리의 운명이 걸린 국가 막중대사라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최근 매일경제신문은 창간기념대
회에서 금융산업 발전에 주력하여 소득 3만 달
러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글로벌 교
육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고려대학교 총장 시절 영어 강의 비율을 높
였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총장 재선 과정
에서 이 대목을 지목한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
러나 지금 다시 그 때로 돌아가 총장으로서 의
사결정을 한다면 영어 강의를 더욱 늘릴 것이
다. 물론 과목에 따라 신축성을 두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영어는 대세이다. 영어를 미
국과 영국의 언어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자
국 언어에 대한 자존심이 유별난 프랑스에서도
인시아드 등 많은 명문 대학들이 100% 영어
로 강의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실이다. 영
어는 이미 지구촌의 공용어이지 한 두 나라의
국어라고 할 수 없다.

영어만 잘 한다고 글로벌 인재가 나오는 것
은 물론 아니다. 세계의 무대에서 지도자로 나
설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
자면 한국 대학교육은 커리큘럼에서부터 학점
관리, 교수 채용 등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를 이
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가르치는 방식과 내
용, 학사의 운용 그리고 인사관리 등에서 세계
최고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보지식혁명의 와중에 있다.
잘 적응하면 역사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반
면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한 세기 전에 나라를
잃은 것 못지않은 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
교육경쟁력의 강화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도

아니다. 우리의 생사, 아니 우리 후손들의 운명
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이다.

필자의 재직 중에도 그러했지만 요즘 3불
정책을 놓고 대학과 교육 당국이 설왕설래중인
것으로 듣고 있다. 3불정책이란 본고사 부활
금지, 기여금 입학 금지, 고교 서열화 금지가
그 핵심이다. 이 정책은 교육의 기회 균등에 무
계를 두어 나온 것으로 안다.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가 교육에도 이어져 교육 불균형의 세습
현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일 것이
다. 사회의 형평성 제고와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일리가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3불정책이 기회 균등의 문제
를 해결하는 데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
일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만 놓
고 보면 3불정책으로 인해 공교육 대신 사교육
이 창궐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비 부담이 늘어
오히려 소득에 따른 교육 불균형이 더 심화된
다는 조사가 줄을 잇고 있다.

교육의 기회 균등에 교육 당국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파격적인 장학제도, 지역 안배 선발, 영세민자
녀 특별지원 등에서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불정책은 그 자체가 교육정책의 목적
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우
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아 이
수준에서 무너져버리고 만다면 그 상황에서의
교육 균형이란 그야말로 다 함께 망하는 하향
균형일 것이다.

3불정책의 근본 취지는 살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도 단순한 의미의 기여금 입
학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
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3불정책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으면 한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소득에 따른 교육 불균형 현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저소득층 인재를 잘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다 해결하는 셈이 된다. 실제로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은 교육 기회의 균형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 비추어 3불정책에 대한 논의는 다소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은 과연 어떻게 하면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경쟁에서 경쟁력이 나온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대학들이 무제한의 경쟁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근 중국과 같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이고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출범할 때 교육부라는 행정기구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게 무제한의 자율을 주었기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아이비리그가 탄생했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교육부를 만든 것은 1980년의 일이다.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소외계층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범시킨 것이다. 지금도 미국 교육부는 어떠한 인가권이나 취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인가에 관한 업무는 투표로 선출된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하고 있다. 그

나마도 재량권이 거의 없다. 각 학문 분야별로 만들어져 있는 학술단체에서 인증하느냐, 또는 거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학교의 운명이 결정된다.

인증기구는 그 구조상 스스로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복수의 인증단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했다가는 해당 인증기구가 스스로 무너진다. 교육부가 할 일은 시장에 자율을 무제한 보장하되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공명정대하면서도 체계가 잡힌 인증기구를 키우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굳이 정부가 개입하고 싶으면 가장 객관성이 높은 인증기구를 지원하면 될 것이다. **대학**

어윤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시간대학교(앤 아버)에서 국제경영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려대학교 총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국제자본시장규제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 『국제금융』(공저), "OECD 가입에 따른 기업의 자본조달 전략", "Rapid deregulation led to the Korean crisis" 등 다수가 있다.